

UCC 영상 제작용 IT기기들 속속 등장

최근 UCC 열풍이 급속도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UCC는 단순한 재미와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최근에는 취업의 벽을 뚫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UCC를 활용한 특특 튀는 이력서가 기업체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효과 만점'의 전략으로 통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 시중에는 동영상 기능이 강화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폰 카메라 등 다양한 기종들이 선보이고 있다. UCC 이용자를 잡기 위한 IT 업체들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리/편집부

올해 초, 취업 준비생이었던 김수현씨(24)는 한 기업의 면접에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며 살사 댄스를 추는 UCC를 선보여 면접관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글로써 보여줄 수 없는 숨은 끼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던 UCC 전략으로 그녀는 당당히 그 회사에 입사했다.

최근 끼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UCC를 이용한 이력서 작성이 늘고 있다. 취업포털 사이트 '커리어'가 지난 4월 구직자 33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33%가 "입사서류에 UCC 동영상을 이용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타 기관의 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대학생이 UCC 활용이 입사에 효과적이라고 답하여 구직자들의 UCC 이력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측의 UCC 이력서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다. 전국 25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 중, 62.8%가 UCC 이력서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아예 자기소개서를 UCC로 모집하거나, UCC 제출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취업전선에 UCC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값비싼 동영상 기기들을 구비하지 않고도 디카, 핸드폰 등 고화질의 UCC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생활 속 IT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디카 하나로 동영상 촬영에서 편집까지!

삼성테크윈 VLUU i85(37만원대 후반)는 800×592의 SVGA급 해상도를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카메라로, 일반 압축 방식에 비해 압축률이 최대 4배 이상 뛰어난 MPEG-4 방식을 채용하여 1GB로 최대 2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 이어찍기, 이미지 추출, 캡처 등의 기능으로 촬영 후, 디지



삼성테크윈의 VLUU i85

텔 카메라에서 직접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UCC 제작!

삼성 애니콜 SCH-B750(일명 UCC폰, 40만원대 초반)

은 해상도 352×288의 CIF급 동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하는 핸드폰으로 폴더와 LCD가 각각 155도, 210도로 회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비디오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 없이 마치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저가형 캠코더로 부담 싹!

소니 NSC-GC1(20만원대 초반)은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29×104×56mm, 무게 150g의 초소형, 초경량 캠코더로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서든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간편한 인터넷 업로드로 인터넷에서 무한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 공유 카메라(NSC, Net Sharing Camcorder)이다.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UCC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은 필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능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영상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IT 업체들의 기술력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삼성테크윈-

●● 짤막뉴스 ●●

“다시 대학 가면 물리학 안 해” 54%

2002년 평가 때 각 대학들은 '기초과학 기피 현상'을 걱정했다. 그중 가장 피해가 컸던 학과 중 하나가 바로 물리학과였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대학에서도 학생이 없어 전공 강의가 무더기로 폐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학부제를 폐지하고 과별로 모집하지는 움직임도 있었다. 당시 한국물리학회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대학평가가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뚜렷했다.

다시 대학에 들어간다면 물리학을 전공하겠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53.3%)이 '아니요'라고 답했던 것. '졸업 후 취업·보수 등에서 받는 열악한 처우' '과학기술에 대한 빈약한 투자' 등이 주된 이유였다.

5년이 지난 이번 평가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평가에서도 물리학회 소속 연구원 239명을 대상으로 2002년 평가 때와 동일한 질문을 던져 봤다. 다시 대학에 입학해도 물리학을 전공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46.4%에 불과했다.

53.6%는 물리학을 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5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00년 초에 비해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아졌다'는 응답도 4.2%에 그쳤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이 60.3%나 됐다. 특히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 '졸업 후 취직·보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이공계 채용 목표제' '이공계 공직자 진출 확대'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공계 살리기 노력이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현상은 각 대학 물리학과와 신입생 선발, 전공 선택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방대 가운데는 물리학을 전공하겠다는 학생 부족으로 학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평가에 불참하겠다는 곳도 적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국립대 물리학과 교수는 "대학원생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국립대도 이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도권대와 지방대 간의 인재 양극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월 1일자 발췌)